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6월 14일 광화문 일대서 개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하며 다음세대 보호 외쳐...

전국 성도들 참여 호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7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4일 '다음세대를 지키는 거룩한방파제'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올해 제11회째를 맞이하는 통합국민대회는 한국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성애퀴어축제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동성애퀴어축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성희롱·성오염 교육,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을 반대한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는 "오늘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 혁명의 공격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며 "젠더 이데올로기의 집요한 공격에 선진국들이 무너졌다. 선진국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공격에 정복당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린 이유는 성 혁명의 파고가 높아지기보다 더 영적인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창조원리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길 원한다. 이 시대적 사명을 따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두발언을 전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예스24기도운동)는 "동성애축제반대 통합국민대회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며 "통합국민대회는 먼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이다. 통합국민대회로 모여 이 장소를 거룩하게 지켰기에 동성애 축제에 모인 동성애자들이 이 중심도에서 동성애에 패레이드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통합국민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셋째로 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린 이유는 동성애축제에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축제 반대통합국민



거룩한방파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대회에 모여서 해마다 대규모 집회를 하니까 다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두려워 감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넷째로 통합국민대회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이며, 다섯째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는 방파제이며, 여섯째로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방파제"라며 "앞으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대한민국의 거룩을 넘어 서서, 서양의 무너져가는 기독교 국가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퀴어축제 준비위는 오는 6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15만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6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 시청, 송례문 일대에서 모인다. 대규모 국민대회를 통해 국가를 진동시키는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과 전국에서 지역별 동성애 축제와 차별금지법과 각종 조례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든 분들이 6월 14일 오후1시에 다 함께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통합국민대회 취지를 설명한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음란하고 유해한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고, 동성애의 폐해와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동성애 독재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호소했다.

전문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홀리브릿지네트워크크리스천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대단히 중차대하고 위험한 시점에 서있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국민의 보편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다음세대를 음란과 죄를 문화로 둔갑시켜 무너뜨리려는 소수의 악한 자들의 꾀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양심 있는 국민들과 지식인들에게 부여한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다. 우리 모두 연합하여 서울시 한복판에서 행해지는 음행의 쓰나미를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통합국민대회는 오는 6월 14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제1부 통합국민대회 특별기도회, 제2부 개회식, 제3부 국민대회, 제4부 퍼레이드, 제5부 문화공연 순서로 진행되며, 청년들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기도 순서는 '가짜! 독소조항! 합의되지 않은!'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하여 ▲전국의 동성애퀴어축제 반대를 위하여 ▲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태아생명 보호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 거룩한방파제를 세우기 위하여 등의 제목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행사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퍼레이드 코스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송례문까지, 5월 14일 집회 장소를 신고할 예정이며, 작년 행사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행사는 김혜수 청년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명서 낭독과 질의응답, 합성기도 순서로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부총회장에 증경총회장 김종훈 목사 선출

사전 등록자 없어 총회 현장에서 추천받아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일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총회를 갖고 신임 목사부총회장으로 증경총회장인 김종훈 목사를 아례적으로 선출했다.

KPCA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그해 목사부총회장을 다음 회기 총회장으로 추대한다. 따라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회장 선거와 다를 없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후보 접수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받았고, 증경총회장단이 이미 총회장을 역임한 김종훈 목사를 단수 추천한 것이다. 증경총회장단 측은 김 목사를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내년 회년을 맞아 KPCA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 경합이 있는 증경총회장님 중에 현재 사무하고 있는 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단수 추천한 것은 김 목사가 증경총회장

으로서 교단의 주요 지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단법에 따라 후보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부 총대들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단수 추천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논쟁이 됐다. "총회의 회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을 뽑는 것인데 너무 시급하게 추천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동안 감론을박이 이어졌고 "속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에 따라 정회했다. 속회 후 증경총회장단은 결국 김 목사와 함께, 역시 증경총회장인 원종권 목사도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원 목사가 후보로 두고 총대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153표, 반대 43표, 기권 11표로 김 목사가 당선됐다.

신임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여러분



신임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 신임 총회장 김경수 목사

에게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제49회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김경수 목사(중앙노회)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김경수 목사는 앞서 소견 발표에서 "많은 이민교회들의 사역이 어렵다. 이민자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고 한인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런 형편"이라며 "이런 가운데 KPCA는 믿음을 지키며 세속주의의 가장 거센 물결인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교단의 재정 잘 활용에 안식년을 갖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인 배문성 장로(서북남노회)가 투표 결과 찬성 218표로 선출됐다. 배 장로는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총회장님을 보필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여러 총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외 한인교회들로 구성된 KPCA는 지난 2010년 서울 명성교회에서 제35회 총회를 가진 이후 15년 만에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8일까지 계속된다.

앞서 직전 총회장인 박태겸 목사는 '회년을 준비합시다(레 25:8-12)라는 제목으로 전한 개회예배 설교에서 "KPCA는 창립 50주년이 회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나? 이는 동시에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0회 총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그러면서 언더우드 등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업적을 언급한 박 목사는 "앞으로 KPCA 총회와 20개 노회와 지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계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을 믿는다"며 "여기까지 헌신하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위대한 KPCA를 만들어 갈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는 "총회는 2026년에 맞을 회년을 준비하고 있다. 총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총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총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순창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는 내빈인사에서 "회년을 앞두고 있는 KPCA가 한국에서 제49회 총회를 갖게 되심을 축하드린다"며 "별빛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별뚫기가 모여 강물을 이루듯, 26개국에 흩어져 있는 KPCA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선교와 헌신으로 영적 불빛이 밝아질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프리미엄을 선점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반도체 배후주거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중
일반분양 아파트 59㎡ / 84㎡ | 총 3,724세대 중 1,681세대(1BL)

분양문의 **031)8033-4979**

총 3,724세대
메머드급
브랜드 대단지

500만원^(1차)
실 투자금
2,000만원대~

무제한 전매
'25년 2월부터

조경부분
대상 수상
삼성물산 MOU체결
에버랜드조경특화적용

PRUGIO